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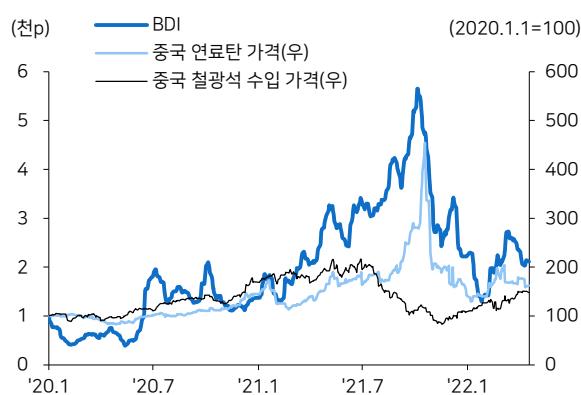
2022. 4. 22 (금)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 건화물운임(BDI)

2,239p(+97.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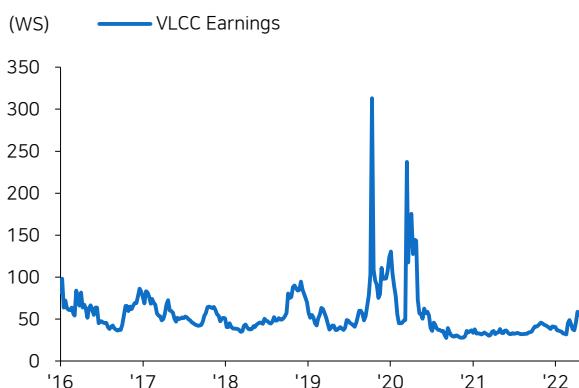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4,228.7(-35.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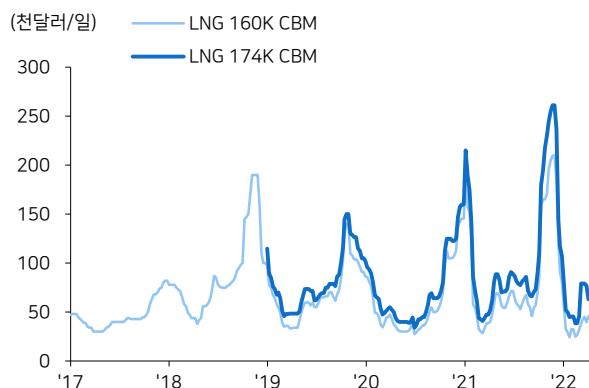
#### VLCC Spot Rate

54.6(-4.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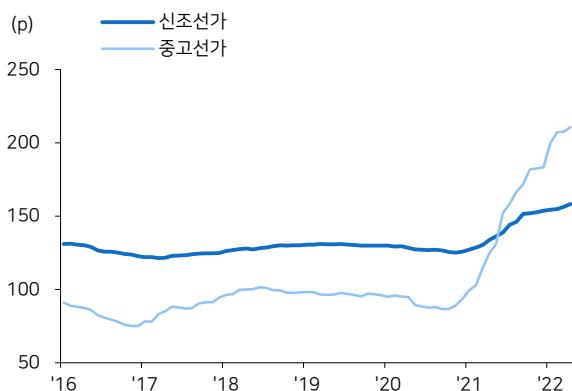
#### LNG Spot 운임

44.5p(-1.5p WoW)  
65.5p(+2.3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8.1p(+1.0p WoW)  
210.6p(+0.2p WoW)



#### 항공시장 지표

273.4p(-)  
104.4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삼성중공업, 1조400억에 드릴십 4척 매각…유동성 확보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4척을 1조400억원에 매각한다고 보도됨. 드릴십 4척 매각을 위해 '큐리어스 크레테' 기관전용사모투자 합자회사(PEF)에 5,9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PEF는 삼성중공업의 드릴십을 매입하고 시장에 리세일(Resale)해 매각 수익을 출자비율 및 약정된 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계획임. 현재 삼성중공업이 보유 중인 드릴십은 총 5척인데, 나머지 한 척은 이탈리아 Saipem이 용선 중임. (뉴시스)

### 현대삼호중공업, LNG선 1척 2,783억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174,000CBM급 대형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수주금액은 2,783억원으로 2025년 하반기에 인도 예정임.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97.4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목표의 55.8%를 달성했다고 보도됨. (선박 뉴스)

### China's domestic coal boost may hurt future dry bulk market

중국의 2022년 석탄 3억톤 증산계획은 장기적으로는 벌크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됨. 중국의 가격조정으로 다른 주요 공급국인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이 불리해짐. 그러나 Breakwave Advisors에 따르면 중국 증산은 현재 spot 운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언급함. 과거 순수출국이었던 중국은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해 수입을 아예 중단하진 않을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 Italy inks gas supply deals in Angola and Congo-Brazzaville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양골라, 콩고와 LNG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Eni는 2023년부터 수송할 계획으로 최대 연간 3백만톤이상 (45억CB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Eni가 작업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가나, Ivory Coast와 리비아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알려짐. (Upsream)

### 미국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현장은 혼선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9일부로 해제됐다고 보도됨.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젯 블루 등 주요 항공사들은 기내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함. 그러나 일부 공항, 기차역 등 시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이용객 사이 혼선이 있다고 알려짐. (에어진)

### 대한항공, 러시아서 1,100억 과징금 날벼락…“행정소송 등 조치”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됨. 지난 2021년 2월 모스크바 세레메티예 보 공항에서 출항절차 중 세관 직인 날인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유임. 대한항공은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 등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